

“펭수 인기에 손가락을 얹으세요”

단일 캐릭터 몸값 키우기 보다 협업 TV·라디오·영화계…전 영역 섭렵 ‘펭수 콘텐츠’ 확대생산 영리한 전략 EBS “외부활동 모두 컬래버 진행”

‘2030세대의 뽀로로’, ‘직장인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EBS 캐릭터 펭수가 영화계로도 진출했다. 개봉을 앞둔 영화와 공동으로 콘텐츠를 기획해 해당 작품의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내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더욱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다. 12월 개봉하는 한국영화 대작 두 편이 펭수와 연이어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12월19일 개봉하는 ‘백두산’과 뒤이어 공개하는 ‘천문:하늘에 묻는다’이다. 일주일 차이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앞 다퉈 동일 캐릭터를 내세워 마케팅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펭수는 영화에 진출하고 싶어 한다는 설정 아래 ‘천문’의 연출자인 허진호 감독과 만나 오디션을 벌인다. 이는 12월 중순 펭수의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트 펭수TV’ 및 영화 SNS 계정을 통해 동시 공개된다. ‘천문’의 홍보마케팅사인 영화인 박주석 실장은 “가장 핫한 캐릭터



펭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12월 개봉하는 ‘천문:하늘에 묻는다’의 연출자 허진호 감독(왼쪽에서 세 번째)과 오디션을 벌인 가운데 영화계와 잇따라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로 꼽히는 펭수는 영화 마케팅에도 단연 매력적인 존재”라며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는 출연자 개념이 아닌 영화와 펭수가 공동으로 시너지를 내는 콘텐츠”라고 밝혔다.

‘백두산’ 측은 현재 펭수와 주연배우,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주연 하정우는 “펭수와 만날

이 확정되자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셨다”며 “펭수의 인기에 ‘백두산’ 팀이 손가락을 얹게 됐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펭수의 인기는 이미 광고계는 물론 라디오와 TV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 영화의 러브콜까지 더해지면서 펭수의 몸값 상승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펭수는 출연료 대신 콘텐

츠 컬래버레이션을 택하고 있다. 단일 캐릭터의 유명세에 치중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확대 생산하려는 ‘영리한’ 전략이다. 펭수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탄생한 캐릭터가 아니라 교육방송인 EBS가 자체 개발한 방송사 소속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EBS 관계자는 20일 “펭수의 외부활동은 전부 콘텐츠 컬래버레이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타 방송사 출연은 물론 펭수와 연계한 영화 관련 공동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촌철살인 화법과 유머감각으로 인기를 더하는 펭수는 올해 4월 시작한 EBS 어린이프로그램 ‘자이언트 펭수TV’의 주인공이다. ‘초등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캐릭터처럼 유명해지고 싶어 고향인 남극에서 바다를 헤엄쳐 한국에 왔다는 설정에 태어났다. 인형 탈을 쓰고 펭수를 연기하고 있는 실제 인물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추리력 탁월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몇몇 성우가 그 후보로 거론되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패딩점퍼·커플링…여성가수들 ‘급이 다른 역조공’ 왜?

현아·아이유 등 팬들에 두드러진 선물 오래 함께 한 ‘소수정예 팬 챙기기’ 역조공 악용 발생 자체 검열하기도

스타들의 ‘역조공’(스타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소정의 선물 등으로 되돌려주는 이벤트)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덤을 유지·관리하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살뜰히 챙긴다는 진심으로 팬들의 마음을 담는 이들이 있다. 여성가수들로, 역조공 ‘클래스’가 남달라 관심을 모은다.

5일 ‘플라워 샤워’를 내고 2년 만에 활동에 나선 현아가 눈길을 끈다. 평소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그는 가정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음악프로그램의 사전 녹화에 참여한 팬들에게 패딩 점퍼, 일정 금액이 충전된 커피카드, 담요, 화장품 등을 선물했다. 2년의 공백기에 전 소속사 계약 해지, 팬타곤 출신 멤버 더과 연애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인 만큼 기다려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아이유도 ‘팬 바라기’로 유명하다. 9월



가수 현아가 화려한 ‘역조공’으로 형식적인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돈독함을 다지고 있다. 뉴스스

11주년 팬미팅에 참석한 팬들에게 기념주화를 선물했고, 10주년 때에는 커플링을 나눠 끼기도 했다. 수지, 선미, 유빈도 화장품, 향수, 헤어제품, 반지 등에 팬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았다.

여성가수들과 팬들 사이에 이 같은 문화가 활발한 데에는 팬덤의 크기도 작용한다. 많은 솔로 여성가수들은 남성 아이돌 그룹에 비해 팬 규모가 크지 않아 오랫동안 활동해온 소수 정예의 팬들을 직접 챙길 수 있다. 또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협찬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비를 들여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한 남성 아이돌의 기획사 관계자는 20일 “팬 인원이 많은 경우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고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수들의 화려한 역조공이 입소문을 타면서 팬인 척 접근해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팬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어 낯선 이가 등장하면 소속사가 나서거나 팬들이 자체적으로 ‘검열’한다. 현아 측은 생일, 캠페 날짜 등 쿼츠를 제시해 이를 푼 팬들만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백소미 기자 bsm@donga.com



김소혜

“김희애 연기에 안밀리네” ‘스무살’ 김소혜의 재발견

데뷔작 영화 ‘윤희에게’ 주연 임대형 감독 “‘똥끼’ 매력적”

신에 김소혜가 스크린에 청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희애와 투톱으로 나선 영화 ‘윤희에게’로 얻은 호평의 힘이다.

1999년생으로 올해 스무 살인 김소혜는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리로 데뷔한 아이돌 스타다. 예정된 그룹 활동이 끝난 뒤 다른 멤버들과 달리 연기에 올인한 그는 KBS 2TV 단막극 ‘강덕순 애정 변천사’부터 웹드라마 ‘똥끼의 히어로즈’ ‘고래먼지’ 등 실험성 짙은 작품을 두루 거치면서 실력을 쌓아왔다.

3년여 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연기력을 다진 김소혜는 오디션을 통해 ‘윤희에게’(제작 영화사 달리기)의 주인공 새봄 역을 따냈다. 얼마 앞으로 온 편지를 우연히 먼저 읽은 뒤 함께 설원의 여행지로 향해 임마가 있고 지낸 꿈과 첫사랑을 되찾도록 일깨우는 딸을 연기했다.

김소혜는 데뷔작에서부터 주연을 맡았지만 그 사실이 무색할 만큼 김희애와 여캐를 나란히 하면서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자매 같은 소녀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렸다. ‘김소혜의 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임대형 감독은 “김소혜에게는 특유의 건강한 ‘똥끼’ 같은 것이 있다”며 “그런 개성이 새봄 역할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4일 개봉한 ‘윤희에게’는 개봉 첫 주말보다 2주째에 접어든 20일 현재 상영관과 스크린 수를 확대했다. 규모 작은 영화의 한계 속에 200여 개 상영관에서 출발했지만 공개 직후 관객 호평이 쏟아지면서 자발적인 상영관 확대 요청이 잇따른 결과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내안의 끼 못말려”…나는 ‘개가수’다

〈개그맨+가수〉

최근 개그맨들, 잇달아 가수 도전장 5인조 ‘마흔 파이브’·김영철 등 신곡



김영철

했지만, 김영철이 개인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최근 4인조로 팀을 재편했다.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데뷔는 현재 방송 중인 MBC ‘놀면 뭐하니’에서 하나의 장르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히트곡 제조기인 작곡가 조영수와 작사가 김이나가 의기투합해 완성한 노래 ‘사랑의 재개발’과 작곡가 박현우·작사가 이견우 등과 함께 만든 ‘함정역 5번 출구’는 ‘코믹 송’으로만 치부되지 않는다.

이처럼 ‘마흔 파이브’ 역시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첫 싱글 ‘스물 마흔살’을 최근 KBS 2TV ‘뮤직뱅크’를 통해 선보였다. 어느 새 불혹을 앞둔 다섯 남자의 청춘에 대

한 애투함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곡이다. 트로트가수 홍진영이 프로듀싱했다. 이들은 화제만을 노린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로 각종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들은 “노래나 춤 연습을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다”면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비장함은 김영철도 마찬가지다. 그는 2년 전 평생 숙원이었던 가수의 꿈을 이뤘고, ‘따르릉’과 ‘안되나용’이 잇따라 사랑받자 올해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신호등’을 21일 선보인다. 트로트에 일렉트로닉 댄스 리듬을 가미했다. 소속사가 가수 윤종신, 하림, 정인, 작사가 김이나 등이 소속된 회사인 만큼 꽤 공을 들였다. 가수 바다가 작사하고 디렉팅까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1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김건모·장지연 내년5월로 결혼 연기

가수 김건모(51)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38) 커플이 내년 5월로 결혼 일정을 연기한다. 김건모 측은 20일 “날씨, 장소 섭외 문제 등 양가 고민 끝에 큰 장소를 잡기 위해 당초 1월30일에서 5월로 예식을 미뤘다”고 말했다. 김건모와 장지연 씨는 5월 김건모 25주년 콘서트 뒤풀이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장지연 씨는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 9월 세계적 공연 ‘더 파서블 드림’

21세기판 ‘라이브 에이드’라 불리며 세계적 톱스타들이 참여하는 자선 공연 ‘글로벌 골 라이브:더 파서블 드림’이 내년 9월 서울에서도 펼쳐진다. 총감독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맡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 총괄프로듀서와 공연 주최사 글로벌 시티즌의 사이몬 모스 등이 아시아 지역 개최지로 서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내년 9월 26일 서울을 비롯해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5개 대륙에서 동시에 열린다. 콜드플레이, 뮤즈,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엑소, 보아, 슈퍼엠 등이 무대에 선다.

미 버라이어티 “BTS 올해 히트메이커”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올해의 히트메이커’로 꼽혔다. 버라이어티는 20일(한국시간) 한 해 가장 큰 인기를 얻은 노래의 제작 레이블과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작곡가 등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그룹’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2월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 버라이어티는 “방탄소년단이 올해 스타디움 투어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슈퍼스타의 입지를 굳혔다”고 밝혔다.

KBS 뉴스9 메인앵커에 이소정 기자

‘KBS 뉴스9’ 메인 앵커로 이소정 기자가 발탁됐다.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뉴스에서 여성이 메인 앵커를 맡는 것은 처음이다. KBS는 20일 “중년의 남성기자가 주요 뉴스를 전하고, 젊은 여성아나운서가 여성 뉴스를 맡는 익숙한 공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는 25일 방송부터 진행하며 최동석 아나운서와 호흡을 맞춘다. ‘주말 뉴스9’ 앵커도 사회부 정영욱 기자와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는 박지원 아나운서가 맡는다.